

기후변화에 따른 미국 투자은행들의 시장대응

□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그동안 탄소배출권 시장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해 유럽에 비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음

□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M&A자문에서부터 소매고객에 이르기까지 점차 환경문제를 고려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

□ **3월 17일 미국의 Green Exchange에서 탄소연계파생상품이 거래되었음**

— Green Exchange는 뉴욕상품거래소, Evolution market, 브로커, Morgan Stanley, Merrill Lynch 등이 연합하여 만든 합작 벤처임

—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대가로 유럽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미국을 압도하여왔으나 Green Exchange의 출범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탄소중개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음

— 리서치 회사인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기후변화의안이 통과되면 201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권시장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여기에 관련 파생상품까지 더하면 시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JPMorgan Chase의 관계자가 밝힘

□ **미국 대선출마자들이 총량거래제(cap-and-trade)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,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탄소배출권시장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[1]**

— Citigroup은 3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 테크놀로지의 지원을 포함하여 10년간500억 달러의 환경계획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Bank of America(BOA)는 200만 달러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음

— Citigroup과 JPMorgan Chase, Morgan Stanley는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에게 금융조건을 강화하겠다는 소위 "탄소원칙(carbon principal)"을 발표하였음

— 또한 Goldman Sachs의 경우 환경문제를 고려한 M&A자문을 하였는데 PEF컨소시엄의 TXU인수 시 석탄공장 설립계획을 줄이도록 하였음

1) Economist 「The Greening of Wall Street」 2008. 03. 15.를 참조하였음



— 투자은행들은 소매시장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는데, BOA의 경우 에너지 효율적인 집에 1,000달러를 되돌려주는 모기지상품을 선보였으며, Deutsche Bank의 경우 그린 뮤추얼 펀드와 탄소거래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음

— 탄소는 다른 시장과 연관성이 적다는 이점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은 5,000만~1억 달러의 환경과 관련된 투자처를 찾고 있음

— 헤지펀드의 경우도 탄소거래시장을 비롯한 환경과 관련된 시장이 미성숙시장이라 차익거래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

투자은행의 배출권 투자 동향

은행명	투자형태	내용
Morgan Stanley	- EUA와 CER에 투자[2)] - CDM[3)]사업 관련업체에 투자	- 5년간 30억 달러 투자예정 - MGM International 주식 일부 매입
Goldman Sachs	- 우수 온실가스 저감 기술 업체에 투자 - 기후거래소에 투자	- Carbozyme, GridPoint 등에 투자 - Climate Exchange의 지분인수
Merrill Lynch	- 탄소펀드에 투자	- 러시아 탄소펀드의 지분 매입
Deutsche Bank	- 탄소펀드에 투자 - 사모펀드 조성	- PCF 참여 - 1천만 유로규모의 PEF형식의 탄소펀드 조성중

자료: 박형건, 2007,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, 산은경제연구소

□ **계속되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투자은행들은 이에 맞추어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**

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성은 물론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

□ **국내의 경우 아직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탄소배출권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증권사들의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함**

— 2007년 12월부터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설계·취급이 허용되었고, 증권선물거래소는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단을 출범시켰음

— 국내에서 거래되는 환경 관련 펀드는 한국투자신탁의 탄소펀드를 비롯하여 대신운용, KB운용, 도이치운용, 슈로더운용 등이 운용하는 약 23개의 펀드가 있음

선임연구원 이종은

2) EUA: European Union Allowance, CER: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

3) 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